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9월 7일 오전10시 민방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과 함께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수유동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여부와,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비상상황발생시 적절한 대피인원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28곳이 있으며, 비상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5면

행정보건위원회, 「민방위 시설」 현장 활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여부 등 확인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9월 7일 오전10시 구청 자치행정과장(정주영)으로부터 민방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과 함께 희망어린이집(한천로 139나길 38)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수유동 포엠빌아파트(한천로139가길 26)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여부와,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비상상황발생시 적절한 대피인원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청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28곳이 있으며, 각 동별 민방위



▲ 민방위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의원, 장동우 의원, 이정식 의원, 김영준 의원, 구본승(위원장), 이백균 의원(좌로부터).

담당이 분기마다 대피시설을 현장 점검하여 비상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사태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관내 29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

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 및 공공용으로 지정한 지하 대피시설이며, 위의 두 시설은 인터넷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본승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비상시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시설확충에 힘 써달라”고 하였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방문 의정활동 펼쳐



◆ 행정보건위원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9월 7일 오전10시 구청 자치행정과장(정주영)으로부터 민방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과 함께 희망어린이집(한천로139나길 38)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수유동 포엠빌아파트(한천로139가길 26)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여부와,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상황발생시 적절한 대피인원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구청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28 곳이 있으며, 각 동별 민방위 담당이 분기마다 대피시설을 현장 점검하여 비상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관내 29개소가 있다.

구본승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비상시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시설확충에 힘 써달라”고 했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의 최일선 현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7일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인수봉로 20가길 24)을 방문하여 지역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민호)은 1990년 개관 이래 현재 42명의 직원들이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의 3개 분야 135개 사업의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은 복지관 소개와 맞춤형 관리 사례관리, 자살예방, 북한 이탈주민지원,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운영,

위기가정지원, 경로당 활성화, 나눔 이웃돌봄, 자원봉사관리, 복지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사업, 교육문화, 자활사업 등 복지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살예방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홀로 지내시는 남성어르신에 대한 집중 관리, 위기가정에 대한 전반적 관리, 고지대에 위치한 복지관 접근성 향상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최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복지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에서도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9월 7일 오전10시 구청 자치행정과장(정주영)으로부터 민방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과 함께 희망어린이집(한천로139나길 38)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수유동 포엠빌아파트(한천로139가길 26)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여부와,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

에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상황발생시 적절한 대피인원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구청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28 곳이 있으며, 각 동별 민방위 담당이 분기마다 대피시설을 현장 점검하여 비상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발

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관내 29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 및 공공용으로 지정한 지하 대피시설이며, 위의 두 시설은 인터넷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본승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비상시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시설확충에 힘 써달라”고 하였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7일 오전10시 구청 자치행정과장(정주영)으로부터 민방위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과 함께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수유동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에서 희망어린이집에 위치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의 작동유무와 주기적인 점검 여부와, 포엠빌아파트 지하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지, 비상상황발생시 적절한 대피인원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구청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128 곳이 있으며, 각 동별 민방위 담당이 분기마다 대피시설을 현장 점검해 비상시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은 노후되어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관내 29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설치 및 공공용으로 지정한 지하

대피시설이며, 위의 두 시설은 인터넷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본승 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비상시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시설확충에 힘 써달라”고 했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